



남자 축구 대표팀 나상호, 황인범이 17일 일본 아이치 도요타시 스포츠파크 불게기그라운드에서 2022 동아시아 축구 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지난 17일 일본 가시마 보조구장에서 동아시아 축구 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 벤투호·벨호, 동아시아컵 ‘동반 우승’ 정조준

### 남자부 4차례 연속 우승 목표 월드컵 대비 국내파 기량 점검 여자부 오늘 일본과 첫 경기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 대표팀과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이 동아시아 축구 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동반 우승을 노린다. 2022 EAFF E-1 챔피언십은 남자부가 일본 나고야에서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중국-일본-홍콩이 참가한다. 여자부는 19일부터 26일까지 가시마에서 열리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풀리그 형식으로 경쟁한다.

벤투호는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20일 중국, 24일 홍콩, 27일 일본과 맞붙는다. 한국 남자 축구는 대회 원년인 2003년부터 부산에서 열린 직전 2019년 대회까지 총 5차례 정상에 올라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연패(2015, 2017, 2019)를 기록해 올해 대회에서 4차례 연속 우승을 노린다. 국제 축구 연맹(FIFA) A매치 기간이 아닌 만큼 이번 동아시아컵에는 손흥민(토트넘), 황희조(보르도)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차출되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K리그 선수를 위주로 팀을 꾸리면서 일본 J리그에서 뛰는 권경원(감바 오사카) 등을 불러들여 26명의 명단을 완성

했다. 2003년생인 강성진을 비롯해 고영준(포항), 김주성(김천), 이기혁(수원FC) 등은 처음으로 A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중국 리그에서 뛰는 손준호(산둥 타이산)도 지난해 9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이후 10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무릎 부상으로 이영재(김천)가 대체 발탁됐다. 또 수비수 이상민(서울)은 첫 성인 대표팀 승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박지수(김천)로 교체됐고, 김영권(울산)은 위장염 증세로 이날 소집에 불참했다. 벤투호가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컵은 국내파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기회다.

여자 대표팀은 2005년 초대 챔피언에 오른 이후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지난 2월 아시안컵 준우승과 지난 달 강호 캐나다와 원정 평가전 0-0 무승부 등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 정상 탈환의 기대감을 높인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엔트리 최대 인원인 26명을 채우지 않은 채 24명으로 출전한다. 공격수 문미라(수원F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빠진 자리에 신예 수비수 정유진(현대제철)을 발탁해 24명의 팀을 꾸렸다. 특히 대표팀은 지소연(수원FC)을 비롯해 조소현(토트넘), 이영주(마드리드CF) 등 유럽파 선수들도 포함한 ‘정예 멤버’로 꾸려졌다.

동아시아컵은 국제 축구 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해외 선수들은 구단의 허가가 있어야 참가할 수 있는데, 조소현과 이영주는 소속팀이 양해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펼쳐지는 한국의 첫 경기 상대는 ‘강호’ 일본이다. 17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한일전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는 각오다. 이번 한일전을 앞두고 여자 축구 대표팀의 이영주는 “일본이 강팀인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남지 못할 산이라는 생각은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아(현대제철) 역시 “(일본이) 엄청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연합뉴스



서석중이 15~17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5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 용인대총장기 전국검도대회 서석중 10년만 단체전 우승

서석중학교가 지난 15~17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5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중학교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석중은 중등부 단체전(5인조) 예선부터 경남 가야중, 제주 저청중, 강원 원통중을 차례로 완파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강호 전북 익산중과 맞붙어 접전 끝에 2-1로 이기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전남 해룡중. 서석중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해룡중을 만나 처음에는 고전했다. 그러나 특유의 근성과 집중력으로 경기 중반 이후에는 흐름을 뒤집었다. 서규원(3년·중견)과 강현우(3년·부장)가 잇따라 승리를 잡았고, 이정환(3년·주장)이 머리치기에 성공하며 3-2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서석중의 이 대회 우승은 지난 2012년 제15회 대회 이후 10년만의 쾌거다. 서석고도 고등부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서석고는 예선부터 8강까지 좋은 경기력으로 흐름을 이어가다 준결승에서 인천고를 만나 1-5로 패하며 아쉽게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최진화 기자

##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 개막...23~24일 국제태권도대회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태권도 체험과 정신을 보급하는 국제 화합의 장 2022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가 개막됐다. 오는 2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17일 입소식을 시작으로 4일 간 태권도 기술을 연마한다.

23일과 24일은 광주 빚고을 체육관에서 광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들과 해외 태권도 수련생들은 상호교류를 통한 기량 향상을 비롯해 한국문화 체험 시간 등 국제적인 화합의 장으로서 운영될 계획이다. /최진화 기자

## 조선대 1·2학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 결승서 선문대에 1-2 석패

조선대학교가 제17회 1·2학년 전국 대학 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준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18일 태백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태백산기 결승에서 선문대에 1-2로 패했다.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용인대를 꺾고 결승에 올르는 파란을 일으킨 조선대였으나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준결승과 결승 모두 교체선수가 상대팀보다 10명이 적은 4명으로만 나선 조선대였지만 경기력은 뒤지지 않았기에 다음 대회에 활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날 조선대는 이른 선제 실점에 발목이 잡혔다. 전반 7분 선문대 이은표에 실점하며 0-1

로 끌려갔다. 이후 볼 점유율은 조선대가 더 높았고 수차례 선문대의 골문을 두드렸으나 좁혀진 골문을 터트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초반 공격을 주도한 조선대는 기어코 동점골을 터트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22분 이원준이 선문대 골대 정면에서 날린 강력한 오른발슛이 그물망을 출렁였다. 1-1을 만든 조선대는 역전골을 노렸으나 성공시키지 못했다. 후반 종료 4분전, 선문대 이동원에 실점했다. 막판까지 파상공세를 펼친 조선대는 아쉽게 득점은 만들지 못했다. 제17회 1·2학년 전국 대학 축구연맹전은 59개팀이 참가해 백두대간기와 태백산기 2개 리그로 진행됐다. 백두대간기 우승은 한남대가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 남지배구팀이 지난 16~17일 충북 단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2전국생활체육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 전국생활체육축전 광주남자배구 준우승

광주 남지배구팀이 지난 16~17일 충북 단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2전국생활체육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재개된 생활체육축전에서 광주 남지배구팀은 처음으로 결승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걸었다. 결승에서 경남과 만난 광주는 탄탄한 공수 플레이로 1세트 초반부터 접전을 펼쳤다. 특히 공격에서 중앙 속공과 좌우측 오픈 공격을 적절히 섞어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경남의 수비진이 견고한 데다, 평균 연령 7세차에 따른 체력 열세로 매 세트 1-2점차로 끌려가면서 세트스코어 0-2(19-21, 18-21)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광주 배구는 생활축전 참가 사상 첫 배구종목 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4강전에서 우승 후보 경기 대표팀을 세트스코어 2-1로 역전승하는 파란을 연출했다. 한편 전남 남지배구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경남과의 4강전에서 첫 세트를 빼앗는 등 선전했으나 2·3세트를 연달아 내주면서 1-2로 역전패했다. /최진화 기자

## 광주시장배 장애인보치아선수권 열린다

### 오늘부터 3일간 광주주대

제7회 광주시장배 전국장애인보치아선수권대회가 19~21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과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관, 270명(선수 110명, 임원 및 관계자 160명)이 참가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열린다. 패럴림픽 정식 종목인 보치아는 표적구에 가장 가깝게 공을 굴린 선수가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다. 이번 대회의 세부 경기는 사지에 장애가

있는 선수가 경기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휴통을 이용해 경기를 치르는 BC3와 사지에 장애가 있는 선수가 상지로 공을 던지는 BC4가 진행된다. 참가 선수는 차기 국가대표 선발의 기준이 되는 랭킹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점수는 100%가 반영된다. 이번 대회 관전포인트는 광주시 출신 보치아 국가대표 강선희(45)다. 강선희는 2022년 보치아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BC3 개인전 1위를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강선희는 다른 선수들보다 비교적 늦은 2017년 보치아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최진화 기자